

단절된 일본문학연구의 계보*

- 『만엽집(万葉集)』을 중심으로-

박 상 현**

(e-mail: koreaswiss@khcu.ac.kr)

目次

1. 들어가면서
 2. 선행연구의 논쟁점
 3. 단절된 『만엽집』 연구
 4. 나오면서
-

1. 들어가면서

2012년 현재 한국의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에는 일어일문학 관련학과¹⁾가 적지 않게 설치되어 있다. 그 대부분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개설되었는데, 여기에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²⁾에서 근대학문으로서의 아카데미즘을 표방한 일본문학연구는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주류인식의 답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일어일문학 관련의 적지 않은 연구자들은 광복 후인 1961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설치된 일본어과와 1962년 현 서경대학교의 전신인 국제대학에 개설된 일어일문학과에서부터 근대학문으로서의 일본문학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413-A00001)

**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일본문화학(万葉集) 전공

1) 여기에는 일본어과, 일어교육학과, 일본학과 등이 포함된다.

2) 이 때 ‘한국’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하의 ‘조선’과 광복 후의 ‘대한민국’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덧붙여 앞으로 사용하는 ‘한국인’이라는 용어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지도 모른다. 이것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면 2012년 현재 ‘한국에서의 일본문학 연구’의 역사는 겨우 50년을 넘긴 정도이고, 그 계보는 한국외대의 일본어과와 국제대학의 일어일문학과에서부터 그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관점만 허용되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먼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한국에서 근대학문으로서의 일본문학연구’는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본다. 다음으로 일본문학연구 가운데 『만엽집(万葉集)』에 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의 기원에 대한 주류 인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일본문학연구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논쟁점

한국에서 근대 아카데미즘으로서의 일본문학연구는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에 대한 견해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1961년 한국외대의 일본어과와 1962년 현 서경대의 전신인 국제대의 일어일문학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근대학문으로서의 일본문학연구의 기원을 광복 이후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런 견해를 적지 않은 일본문학연구자가 가지고 있다. 곧 주류의 입장이라 말할 수 있겠다.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근대 아카데미즘으로서의 일본문학연구의 기원을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 설치된 ‘국문학’(=일본문학) 강좌³⁾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견해다. 그런데 이 견해를 피력하는 연구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은 비주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국에서 근대학문으로서의 일본문학연구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전자의 견해를 피력한 논문부터 검토해 보자.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도모나가(朝長) 노리가 1984년에 쓴 「한국에 있어서 일본문학 연구·소개의 현

3) 강좌제는 제국대학의 큰 특색으로 교수를 핵으로 하는 교육연구의 기초단위다. 한 강좌에 한 명의 교수를 두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당시 법문학부에 소속된 ‘국어국문학’(=일어일문학) 강좌는 두 강좌로 구성되어 있었다. 곧 ‘국어학’(=일어학) 전공이 한 강좌, ‘국문학’(=일본문학) 전공이 한 강좌였다. ‘국문학’(=일본문학) 강좌에는 일본 고전학, 특히 당시 『만엽집』 연구의 대가였던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가 최초로 취임했었다.

정선이(2002) 『경성제국대학연구』 문음사. pp.106-111

상」이 일본문학연구에 대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표된 글이다. 여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한국에 있어서 오랫동안 일본어를 비롯하여 일본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처음으로 일본어를, 일본문학을 완전히 하나의 외국어로서, 순수히 하나의 학문으로서 배울 수 있는 체제가 성립되기까지는 16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었다. 즉, 1961년에 한국외국어대학에 일본어과가 설치되면서부터 일본문학도 정식으로 학문·연구의 대상이 된 것이다. 다음 해에 국제대학에 일어일문학과가 설치되었으나 그 후 10년간은 이 두 대학만이 일본문학 연구의 전당이였다.⁴⁾

이후 몇몇 연구자들도 일본문학연구를 회고하는 자리에서 도모나가 노리와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황석승은 1988년에 발표한 「한국에서의 일문학연구의 회고와 성과」라는 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해방 이후 15년여에 걸쳐 한국에서의 일어일문학을 비롯한 일본 연구는, 국민들의 反日感情과 함께 기피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후, 1961년에 한국외국어대학에 일본어과, 1962년에 국제대학에 일어일문학과가 개설됨에 따라 兩大學에서 일문학 강의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1965년 韓日間에 國交가 정상화됨에 따라 일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일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 1960년대의 일문학 연구는, 그 성과에 있어서 거의 全無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일문학 연구는,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각 대학의 일어일문학·일본학 관계 학과의 설치, 대학 부설 일본 관계 연구소의 설립, 한국일본학회⁵⁾ 및 한국일어일문학회⁶⁾의 창립과 더불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⁷⁾

그리고 도모나가 노리와 황석승과 같은 입장은 일본문학연구 전 분야를 회고하는 글⁸⁾에서도 보이고, 어떤 특정 시대의 일본문학연구를 회고하는 글⁹⁾에

4) 朝長 노리(1984) 「한국에 있어서 일본문학 연구·소개의 현상」 『일본문학논집』 남영문화사. pp.511-512

5) 한국일본학회는 일본문화연구를 목적으로 1973년에 창립되었다.

6) 한국일어일문학회는 일본어문학연구를 목적으로 1978년에 세워졌다.

7) 황석승(1988) 「한국에서의 일문학연구의 회고와 성과」 『일본학보』 제20권, 한국일본학회, p.33

8) 정형(1993)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일본학보』 제30집, 한국일본학회. pp.127-128

서도 확인된다.

이들 논문 가운데 일본문학연구의 기원을 광복 이후로 잡아야 하는 이유를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형의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다. 그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문학연구의 대상을 평론을 포함하는 일본의 문학작품으로 규정한다면 우리의 일본문학연구사는 적어도 일본식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일본문학연구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외국문학연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일본문학연구가 외국문학연구로서 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체적인 한국문학연구의 정립을 그 전제로 함은 당연하나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의 우리 문학연구는 험난한 여건으로 인해 굳건한 토대를 확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¹⁰⁾

요컨대 정형은 위 논문에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에 의한 일본문학연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주체적인 한국문학연구가 정립되지 않았기에 그 시기에 이루어진 일본문학연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외국문학연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채수와 김종덕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김채수의 주장을 들어 보자. 김채수는 「한국인의 일본문학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서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의 단계를 4단계, 즉 1단계 ‘개화기에서 1919년 3·1운동 전후까지’¹¹⁾, 2단계 ‘1919년 3·1운동에서 1937년 중일전쟁 발발시점까지’¹²⁾, 3단계

권혁건(1994) 「한국에서의 일본문학 연구 현상」 『일본학연보』 제6집, 일본연구학회. pp.131-132

김용기(2000)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의 문제점 및 극복 방안」 『일본문화연구』 제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91

9) 장영철(2000) 「한국에서의 일본 고전문학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일본문화연구』 제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107-120

최재철(2005) 「한국의 일본문학 연구-동향과 전망-」 『일본근대문학 : 연구와 비평』 제4집, 한국일본근대문학학회. pp.123-134

최충희(2005) 「한국에서의 일본 중세문학연구의 현황 및 그 비판적 점검」 『일어일문학연구』 제52집, 한국일어일문학학회. pp.31-40

10) 정형(1993)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일본학보』 제30집, 한국일본학회. pp.127-128

11) 김채수는 이 시기에서의 일본문학연구는 주로 신문화를 배우려고 일본에 갔던 유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들의 일본문학연구는 한국보다 일찍 서구문화를 받아들인 일본의 신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의 일본문화연구는 일본어 학습, 서구화된 일본문학, 일본화 된 서구문학 등을 받아들여 그것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근대적 문학활동을 성립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김채수(2000) 「한국인의 일본문학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일본문화연구』 제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43

‘중일전쟁에서 해방시점까지’¹³⁾, 4단계 ‘해방 이후 한일국교 재개까지’로 나눈 후, 다음과 같이 일본문학연구는 경성제대의 ‘국문학’(=일본문학) 강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인의 일본문학연구기반은 일제시대를 통해 형성되어 나왔다. 당시 한국인에 있어서의 일본문학은 외국문학으로서가 아니라 자국문학으로 인식될 것이 강요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제시대의 일본 내에서도 한반도에서의 일본문학연구는 주로 대학인들에 의해 행해졌었다. 한반도 내에서의 대학은 1924년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으로 출발되었다. (.....) 일제 때 한반도 내의 경성제대에서의 조선인들을 위한 일본문학연구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출발되었고, 또 그것은 일제의 제국주의 정책에 동참해 경성제대에 입학했던 조선인들에 의해 계승되었다.¹⁴⁾

김채수는 위 글에서 한일국교 재개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근대 아카데미즘으로서의 일본문학연구의 기원을 경성제대에서 찾고 있다.¹⁵⁾

또한 김종덕은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문학연구의 현황과 전망」에서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를 검토하면서 주로 광복 이후의 연구성과를 살폈다. 하지만 최남선의 글인 「일본 신전(神典) 속의 애육적 문학」과 「일본문학에 있어서의 조선의 모습」, 그리고 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강좌 출신인 서두수¹⁶⁾가 쓴 평론인 「일본문학의 특질」과 「일본문학과 고전」을 예시하면서 광복 이전

12) 2단계에서의 한국인의 일본문학연구는 1924년 일본인이 경성에 제국대학을 설립해서 그곳에서 일본문학을 가르치자, 한국인들이 그곳에서 일본인들로부터 일본문학을 배우게 됨으로써 출발되었다고 한다.

김채수(2000) 「한국인의 일본문학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일본문화연구』 제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43

13) 이 시기에 일제는 일본 국민정서의 이식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어 교육을 한국인들에게 강요해가면서 한국인들로 하여금 일본말의 사용과 일본어로의 글쓰기를 강요해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 내 문인들의 대다수가 일본어로 창작활동을 행하게 되었고, 일본 내의 한국 유학생들의 일부는 일본어문학과에 들어가 일본문학연구를 전공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김채수(2000) 「한국인의 일본문학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일본문화연구』 제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43

14) 김채수(2000) 「한국인의 일본문학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일본문화연구』 제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41-42

15) 김채수는 경성제대 예과가 설치된 1924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일본문학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예과에서 한국인이 일본문학을 접했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경성제대에 ‘국문학’(=일본문학) 강좌가 생긴 것이 법문학부가 개설된 1926년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국인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본문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26년부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16) 서두수는 현 카이스트 총장인 서남표의 아버지이다. 서두수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후술하기로 한다.

에 이루어진 일본문학연구 성과도 시야에 넣고 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물론 近代以後 1945년까지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外國文學을 연구한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¹⁷⁾. 그러나 **근대 이후의 한국문학이 일본문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창출된 점을 생각하면, 일본문학의 연구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¹⁸⁾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하나는 광복 이후 곧 한국외대의 일본어과와 현서경대의 전신인 국제대의 일어일문과에서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견해를 지지하는 주요한 근거는 **‘일제강점기에는 우리의 주체적인 한국문학연구가 정립되지 않았기에’** 그 시기에 이루어진 일본문학연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외국문학연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의 기원은 일제강점기하 경성제대의 ‘국문학’(=일본문학) 강좌에서 찾아진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는 이렇다. 즉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에 있어 일본문학은 외국문학으로서가 아니라 자국문학으로 인식될 것이 강요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경성제대의 예과에서 그리고 법문학부 내의 ‘국문학’(=일본문학) 강좌에서 일본문학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서두수와 같은 사람은 그 강좌에서 일본문학을 전공했다. 또한 근대 이후의 한국문학이 일본문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창출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일제강점기하에 일본문학의 연구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입장 곧 **‘일제강점기에는 우리의 주체적인 한국문학연구가 정립되지 않았기에’** 그 시기에 이루어진 일본문학연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외국문학연구로 볼 수 없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입장은 과연 그 근거가 타당할까? 실제 당시 경성제대 법문학부에는 ‘조선어학’ 강좌뿐만이 아니라, ‘조선문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조선문학’ 강좌에서는 우리들에게도 낮은 조운제, 방종현, 구자균, 김사엽 등¹⁹⁾이 조선문학을 전공하고 있었

17) 정형의 다음과 같은 논문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정형(1993)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일본학보』 제30집, 한국일본학회. pp.127-142

18) 김종덕(2003)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문학연구의 현황과 전망」 『일어일문학연구』 제35집, 한국일어일학회. p.41

김종덕은 여기서 한국에서의 근대학문으로서의 일본문학연구가 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강좌에서 시작되었다고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서두수에 대한 언급으로 봐서 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강좌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19) 이 밖에도 적지 않은 한국인이 당시 경성제대 ‘조선문학’ 강좌에서 수학했다. 덧붙여 한국어학 연

다.²⁰⁾ 또한 조운제를 비롯한 이들 ‘조선문학’ 강좌 출신들이 남긴 연구성과²¹⁾는 광복 후의 한구문학연구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전자의 입장을 단순히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당시 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강좌에 재학 중이었던 일본인 학생이 ‘국문학’(=일본문학)을 배운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진정한 의미로 자국문학으로서의 ‘국문학’(=일본문학)을 전공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인’이었던 서두수도 과연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국문학’(=일본문학)을 전공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서두수의 ‘조선문학’(=한국문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다.

그는 ‘국문학’(=일본문학) 전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931년에 ‘조선어문학회’²²⁾를 조직하면서 ‘조선문학’(=한국문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조선문학’(=한국문학)과 관련하여 그가 남긴 글 가운데 주요한 것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조선가요집성:독과만어(讀過漫語)」 동아일보, 1934²³⁾

「뽕·레뷰:-조운제씨저(著)-독(讀)『조선시가사강』」 동아일보, 1937

「『張赫宙. 春香伝』을 읽었다男의馬鹿な質問²⁴⁾」 『독서』 조선독서연맹, 1938

「조선고전문학관견-특히 『춘향전』을 위요(圍繞)하야」(1회~15회) 『조선일보』, 1938

「망론(妄論) 『춘향가·춘향전』」 『문장』 제1권제3호 문장사, 1939

「재설(再說)춘향전과 고전-문단평(文評壇)에 기(奇)함-」 『조선문학』 제16집 조선문학사, 1939²⁵⁾

구에 있어 일가를 이룬 이희승(이희승에 대해서는 주 54에서 다시 인용함), 이승녕 등은 경성제대 ‘조선어학’ 강좌에서 수업을 들었다.

20) 이충우의 조사에 의하면 경성제대 예과를 입학한 후, 법문학부에서 ‘조선어학’ 강좌 및 ‘조선문학’ 강좌를 전공하고 졸업한 한국인은 20명 정도였다. 이 가운데 학계에 남아 후학을 가르친 사람은 15명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연구자의 비율이 결코 낮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충우(1980) 「조선인 입학생 명단」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pp.265-297

21)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경성제대 예과 1회 입학생인 조운제의 경우를 들어 보자. 경성대학 법문학 부장과 서울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던 그는 『조선시가사강』, 『조선시가의 연구』, 『한국문학사』, 『국문학개설』, 『도남잡지』 등을 저술했는데, 그의 학문적 영향력은 한국문학연구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시업(2008) 「풍죽(風竹)처럼 사신 도남 조운제 선생」 『스승』 논형. pp.208-230

22) 조운제, 이희승, 이승녕, 방종현 등이 참가했다. 기관지로 『조선어문학회보』를 간행했다.

23) 김태준의 저서에 대한 서평이다.

24) 「『장혁주. 춘향전』을 읽은 남자의 명칭한 질문」

25) 이 밖에도 그는 적지 않은 글을 남기고 있는데, 여기서는 참고로 일제강점기하에 발표됐던 것을 위주로 하여 나열해 둔다.

「비극고찰편편(悲劇考察隻片)」(『신홍』 제3호, 신홍사, 1930), 「고 윤용균군이 생각해서」(『신

이와 같은 서두수의 ‘조선문학’(=한국문학) 관련 활동에 대해 서은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선문학에 대한 이러한 작업(조선문학 관련 글을 가르킴, 인용자)을, 단지 제도교육 속에서 문학사 연구의 의의와 근대적 실증주의 방법론을 학습한 서두수의 순수한 아카데미즘적 욕망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학문적 연구라는 객관적 의장 속에서 조선어로 된 조선문학을 지속적으로 대상화한다는 것은, 모국어로서의 조선문학의 존재를 확인하고 知의 체계 속에서 재구성하고자 하는 피식민자로서의 자의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그것이 식민주의 담론의 자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처럼 서두수는 일본문학과 조선문학을 동일한 지면 속에서 하나의 논리적 틀로 연루시키지 않음으로써, 즉 그것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대상화함으로써 식민-피식민의 직접적 도식화의 부담을 돌파하고 있는 것이다.²⁶⁾

위의 서은주의 지적에서도 보이듯이, 서두수는 ‘국문학’(=일본문학) 강좌에서 일본문학을 전공했지만 그에게 있어 ‘국문학’(=일본문학)은 외국문학이었다고 봐야 한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인으로서 ‘국문학’(=일본문학)을 전공했던 서두수의 ‘조선문학’(=한국문학)에 관련된 활발한 활동이 일본인으로서 ‘국문학’(=일본문학)을 전공한 일본인 학생과는 크게 다른 점이였다. 그런 의미에서 서두수에게 ‘국문학’(=일본문학)은 결국 ‘외국문학’이었고, 서두수가 연구한 ‘국문학’(=일본문학)은 ‘외국문학’으로서의 ‘국문학’(=일본문학)이었다고 봐야 한다.²⁷⁾

따라서 좀 전에 언급했듯이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에 의한 주체적인 한국문학 연구가 정립되었다는 점과 ‘국문학’(=일본문학)을 전공한 서두수의 멘탈리티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역시 한국에서 이루어진 근대 아카데미즘으로서의 일본문학 연구의 기원은 일제강점기하의 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강좌에서부터

홍 제6호, 신흥사. 1931), 「웃송(頌) [숙(續)]」(『조선어문』 조선어학회. 1932), 「향토의 가을 빛:사과밭 뚝을 거닐면(上) 남포들에서」(동아일보. 1934), 「향토의 가을 빛:사과밭 뚝을 거닐면(下) 남포들에서」(동아일보. 1934), 「오페라백과 K교수」(『문장』 제1권제7호, 문장사. 1939), 「산상미상(山上迷想)-신·44조(神·四四調)」(『문장』 제1권제2호, 문장사. 1939), 「문인이 본 남북 16도시의 인상」(『삼천리』 제13권3호, 삼천리사. 1941), 「연구수첩:연구를 볼모로 2층을 꿈꾼다」(『국민문학』 인문사. 1941)

26) 서은주(2008) 「일본문학의 언표화와 식민지 문학의 내면」 『상허학보』 제22집, 상허학회. p.268

27) 하지만 194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서두수는 일본문학에 관련된 글만 왕성하게 발표한다. 따라서 1940년부터 광복 전까지 그에게 있어서 일본문학은 더 이상 외국문학이 아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새로운 글에서 밝히기로 한다.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 가운데 『만엽집』 연구사를 검토해 봄으로써 일본문학연구의 기원을 광복 이후로 생각해 왔던 인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 하필 『만엽집』 연구사인가 하면, 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강좌 출신인 서두수에 의해 발표된 일본문학에 관련된 글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만엽집』이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만엽집』 관련 글로는 『만엽집』에 수록된 ‘병사의 노래(防人歌)’에 대한 평론이 있고, 또한 그것이 대한 한국어 번역이 있다.

3. 단절된 『만엽집』 연구

최광준은 「한국에서 『만엽집』 연구 성과와 과제 조명」이라는 논문에서 『만엽집』이 한국에서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아울러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나름대로 조명하여 보려 한다²⁸⁾고 밝힌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에서의 『万葉集』 연구는 다른 日本文学の 연구가 그러했듯이 연구의 역사가 그리 깊지는 않다. (.....) 1976년 淸州大学校 論文集에 발표된 송석래의 「한일고대가요의 비교문학적 시고(試攷)」는 본격적인 万葉연구는 아니지만 일본의 古代歌謡인 『万葉集』을 正式으로 연구논문의 테마로 다루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 시기는 万葉研究뿐 아니라 다른 日本文学の 연구도 처음 시작할 단계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万葉연구라고는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²⁹⁾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결국 최광준은 한국에서의 『만엽집』 연구의 역사를 광복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은 그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만엽집』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이기도 하다.

그럼 지금부터 광복 후에 『만엽집』과 관련하여 어떤 논저가 나왔는지 간단하게나마 검토해 보자.³⁰⁾ 이한섭이 편저한 『한국일본문학관계연구문헌일람』

28) 최광준(2005) 「한국에서 『만엽집』 연구 성과와 과제 조명」 『일본학보』 제62집, 한국일본학회. pp.515-516

29) 최광준(2005) 「한국에서 『만엽집』 연구 성과와 과제 조명」 『일본학보』 제62집, 한국일본학회. p.520

30) 여기서는 주로 이한섭의 『한국일본문학관계연구문헌일람』을 참조했다. 이 책은 광복 이후부터

에 의하면, 광복 후 『만엽집』 관련된 글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1970년대였고, 그 시대를 대표한 연구자는 송석래였다.³¹⁾

김운학(1974) 「향가와 일본 가요와의 관계」 『동국대논문집』 제13집 동국대학교
 전기정(1974) 『和歌と時調との比較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일본어과 석사
**송석래(1976) 「한·일고대시가의 비교문학적 시고」 『청주대논문집』 청주
 대학교³²⁾**

또한 『만엽집』 관련 단행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10년이 늦은 1980년대다.

김사엽(1983) 『일본의 만엽집』 민음사³³⁾

송석래(1983)³⁴⁾ 『韓日古代歌謡の比較研究』 학문사

1999년까지의 한국인이 발표한 일본문학 관계 단행본, 논문, 학위논문 리스트를 망라한 것이다. 하지만 논저를 인용할 때는 『한국일본문학관계연구문헌일람』만을 신뢰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직접 실물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한섭(2000) 『한국일본문학관계연구문헌일람』 고려대학교 출판부. pp.3-417

31) 권혁건은 「한국에서의 일본문학 연구 현상」에서 현재 각 대학의 일본어 관련학과에서 일본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자의 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의 식민지시대에 일본 및 국내의 대학 출신자**,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의 교육을 받은 재일한국인, 해방 이후에 국내대학원 출신자, 해방 이후에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대학원을 마친 비교적 젊은 연구자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에 활약했던 일본문학연구자는 대개 일제강점기에 ‘내지(内地)’인 일본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자와 경성제대 출신자, 그리고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의 교육을 받은 재일한국인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권혁건(1994) 「한국에서의 일본문학 연구 현상」 『일본학연보』 제6집, 일본연구학회. p.137

32) 김운학과 전기정은 위의 논문 외에 『만엽집』 관련 글을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송석래는 『만엽집』 관련으로 적지 않은 논문을 남기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송석래(1985) 「전이와 수용 : 일본만엽집(日本万葉集)과 신라향가(新羅鄉歌)의 불교사상연구(1) - 정도왕생사상을 중심으로 -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 한국동방문학비교연구회

_____ (1986) 「일본만엽집과 신라향가의 비교문학적 시고-만가(挽歌)의 수용과정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4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_____ (1990) 「일본만엽집과 신라향가의 배경설화연구(I)」 『동아시아문화연구』 제17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3) 김사엽은 『만엽집』 과 관련된 어학 및 문학 논문을 다수 남기고 있는데, 문학 논문으로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사엽(1984) 「일본고전문학에 담긴 한국적요소 : 만엽의 노래와 향가」 『일본학』 제4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_____ (1985) 「한·일 단가형성의 비교연구」 『시조학논총』 제1집, 한국시조학회

_____ (1985) 「향가와 만엽집의 상관관계」 『한남어문학회』 제11집, 한남대학교

34) 광복 후 한국에서 『만엽집』 관련 논저를 쓴 연구자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송석래를 예로 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태어난 그는 일본의 오이타현(大分県) 사범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후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쳤고, 일본의 국학원(国学院)대학교에서 『한일고대가요의 비교연구(韓日古代歌謡の比較研究)』로 박사학위를 받았

그런데 『만엽집』 관련 논저 가운데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병사의 노래(防人歌)’에 대한 글이 언제부터 나왔고, 어떤 내용을 다루었느냐다.³⁵⁾ 광복 후 ‘병사의 노래’를 처음 소개한 것은 『한국일본문학관계연구문헌일람』에 따르면, 1983년에 출간된 김사엽의 『일본의 만엽집』이다.³⁶⁾ 그리고 1990년대까지 ‘병사의 노래’에 관한 글은 정봉택(1997)의 「사키모리노래와 아스마고쿠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뿐이다.³⁷⁾

먼저 김사엽부터 살펴보자. 그는 『일본의 만엽집』에서 다음과 같이 ‘병사의 노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防人歌는, 長歌 1首, 短歌 83首를 天平勝宝 7년(755) 2월에 部領使를 거쳐 兵部少輔인 家持에게 進達되 것과, 短歌 8首를(이것은 옛날 지어진 것) 盤余 諸君이 家持에게 준 것, 그리고 「昔年相替한 防人歌」란 1首 등이 있다. 『万葉集』에 실려 있는 防人歌는, 卷十四에 短歌5首, 卷十三에 長歌 1首, 短歌 1首가 있을 뿐인데 비하면, 卷二十의 防人歌에 관한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卷十三·十四에 있는 노래와 卷二十의 「昔年の 防人歌」는 작가불명이나, 天平勝宝 7歲의 것은 작자명이 기재되어 있다. 노래의 작자로서 서민의 이름이 이처럼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다른 데에 그 예가 없다. 또 徵集되어 防衛를 위하여 나아갈 때의 노래는, 긴 和歌史에 있어서 근대 이외는 별반 없다.³⁸⁾

정봉택은 「사키모리노래와 아스마고쿠³⁹⁾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에서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논문을 썼다.

다. 청주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특히 한양대학교에 재직 중에는 『만엽집』을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 적지 않은 제자를 길러냈고, 현재 그 제자들은 일어일문학 관련 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송석래(1991) 『향가와 만엽집의 비교연구』 을유문화사. p.313

35)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후술한다.

36) ‘병사의 노래’를 테마로 쓴 첫 번째 논문은 최광준(1989)의 「병사의 노래 1수:권20·4355번 노래에 대해(防人歌一首:卷20·4355番歌をめぐって)」다. 하지만 이 글은 한국학계가 아니라 일본학계를 대상으로 일본에서 일본어로 발표된 것이기에 이번 검토에서는 제외했다.

37) 2000년대 들어와서 ‘병사의 노래’에 대한 몇몇 논문이 있었지만, 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강좌 출신인 서두수가 쓴 ‘병사의 노래’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박상현의 일련의 논저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상현(2009) 『해석의 정치학-‘병사의 노래’ 연구사 비판-』 제이앤씨

_____(2011)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 번역에 관한 연구- 「防人歌(사키모리노우다):치출한 이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3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_____(2012) 「경성제대 ‘국문과(일문과)’ 출신 서두수 연구- 『만엽집(万葉集)』 번역을 둘러싼 김억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문화학보』 제5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38) 김사엽(1983) 『일본의 만엽집』 민음사. p.83

39) 정봉택은 ‘東國’을 ‘아스마고쿠(asumakoku)’로 읽고 있으나, ‘아즈마노쿠니(azumanokuni)’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까지 万葉集 研究 일환으로 사키모리노래, 사키모리의 노래, 아스마노래 등, 수많은 학자들의 研究 論文이 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古代 日本 国土 防衛의 兵士를 이 아스마지방에서 차출하였는가를 研究한 論文이나 研究書를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점에 중점을 두어 사키모리노래 및 사키모리의 노래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⁴⁰⁾

그리고는 ‘병사(防人)’가 ‘아즈마노쿠니(東国)’에서 많이 차출된 것은 그 지방에 백제 유민이 많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⁴¹⁾

김사엽과 최광준 그리고 정봉택의 글에는 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강좌 출신인 서두수가 현 이화여자대학교인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병사의 노래’에 대해 발표한 다음과 같은 글이 전혀 인용되어 있지 않다.⁴²⁾

「병사의 마음(防人のこころ)」(국민문학. 1942)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매일신보. 1942)⁴³⁾

「병사의 마음」은 서두수가 일제 말기에 친일 문예월간지인 『국민문학』에 1942년 11월에 발표한 평론으로, 야스다 요주로(安田与重郎)⁴⁴⁾의 『만엽집의 정신(万葉集の精神)』(1942)과 경성제대 재학 시 스승이었던 다카기 이치노스케⁴⁵⁾의 『요시노의 은어(吉野の鮎)』(1941)를 참조하시면 병사의 노래를 소개한 평론이다. 여기서 그는 ‘병사의 노래’가 ‘충군과 애국(大君への忠<まこと>と国への誠<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⁴⁶⁾, 그가 병사의 노래를 어떻게

40) 정봉택(1997) 「사키모리노래와 아스마고쿠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제19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222

41) 정봉택(1997) 「사키모리노래와 아스마고쿠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제19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238

42)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기로 한다.

43) 이 밖에도 서두수는 일본(문)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적지 않은 글을 발표했다.

「긴바라 세소 저(金原省吾著) : 표현의 일본적 특성」(국민문학. 1939) 「일본문학의 특징」(인문평론. 1940), 「전통과 묵수(墨守)」(매일신보. 1940) 「문학의 일본심」(삼천리. 1941), 「일본문학과 고전」(매일신보. 1942), 「문학의 일본심」(조광. 1942), 「일본의 생활미」(반도의 빛<半島の光>. 1942), 「명치문학이 탄생할 무렵(明治文学が生れる頃)」(춘추. 1942), 「명치 소설(明治の小説)」(춘추. 1942), 「명치 소설(明治の小説) (속<つづき>)」(춘추. 1942), 「명치 시가(明治の詩歌)」(춘추. 1942), 「명치 극문학(明治の劇文学)」(춘추. 1942), 「가모노 마부치(賀茂真淵)」(국민문학. 1943) 이 가운데 특히 「긴바라 세고 저 : 표현의 일본적 특성」은 명저 해설로, 이번에 필자가 새롭게 발굴한 자료임을 밝혀둔다.

44) 문예비평가. 반근대주의적 미의식을 주장하여 1930년대에 각광을 받았다.

45) 일문학자. 경성제대 교수 역임. 『만엽집』 뿐만이 아니라 『고사기(古事記)』·『일본서기(日本書紀)』에 관한 글을 다수 남겼다.

46) 서두수(1941) 「防人のこころ : 名作研究」 『국민문학』 인문사. pp46-60.

보고 있는가, 곧 자신의 ‘병사의 노래관’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⁴⁷⁾

한편 「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은 서두수가 조선총독부의 조선어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1942년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연재했던 ‘병사의 노래’에 대한 한국어역이다. 그가 ‘병사의 노래’의 한국어 번역을 시도한 이유는 ‘진정한 일본심’ 곧 ‘진정한 충군과 애국의 정신’, 천황과 일본을 위해 멸사봉공하는 ‘피의 동맥’, ‘피의 논리’를 일본어를 모르는 식민지 조선의 신민에게 ‘이식’하고 싶었기에 때문이었다.⁴⁸⁾

그런데 김사엽과 최광준 그리고 정봉택이 ‘병사의 노래’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선행연구인 서두수의 글을 인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선행연구에 서두수의 글이 있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고, 그들의 논문 테마에 관련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추정 가운데 특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전자이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인용했지만 최광준이 「한국에서 『만엽집』 연구 성과와 과제 조명」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대목이기에 다시 인용한다.

한국에서의 『万葉集』 연구는 다른 日本文学の 연구가 그러했듯이 연구의 역사가 그리 깊지는 않다. (.....) 1976년 淸州大学校 論文集에 발표된 송석래의 「한일고대가요의 비교문학적 시고(試攷)」는 본격적인 万葉연구는 아니지만 일본의 古代歌謡인 『万葉集』을 正式으로 연구논문의 테마로 다루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 시기는 万葉研究뿐 아니라 다른 日本文学の 연구도 처음 시작할 단계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万葉연구라고는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⁴⁹⁾

요컨대 최광준은 한국에서의 『만엽집』 연구의 시작을 송석래(1976)의 「한일고대시가의 비교문학적 시고」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근대 아카데미즘으로서의 『만엽집』 연구의 기원은 곧 경성제대의 ‘국문학’(=일본문학) 강좌 출신인 서두수의 글에서 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서두수라는 존재는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 인물이었다.⁵⁰⁾

47) 박상현(2011)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 번역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연구』 제39집, 동아시아 일본학회. p.227

48) 박상현(2011)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 번역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연구』 제39집, 동아시아 일본학회. p.232

49) 최광준(2005) 「한국에서 『만엽집』 연구 성과와 과제 조명」 『일본학보』 제62집, 한국일본학회. p.520

50) 간단하게나마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서두수에 대해 언급한 것은 필자가 아는 한 임중국이 처음이다. 그는 『친일문학론』에서 서두수가 일제강점기에 『만엽집』 등의 번역을 통해 황국신민화에 협력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국 한국에서의 『만엽집』 연구는 선행연구와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단절성은 비단 『만엽집』 연구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에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곧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의 계보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단절성은 경성제대의 ‘국문학’(=일본문학)의 존재에 대한 무지 및 무관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일제강점기하에 이루어진 일본문학연구를 애써 외면하고 싶은 멘탈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이 가운데 먼저 무지 및 무관심의 원인에 대해 좀더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으로 경성제대의 ‘국문학’(=일본문학) 강좌 출신은 서두수 한 사람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⁵¹⁾ 둘째 서두수는 광복 이후 전공을 한국문학으로 바꾼 후⁵²⁾, 현 연세대학교인 연희대학교⁵³⁾와 서울대학교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쳤고⁵⁴⁾, 6·25 직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⁵⁵⁾ 거기서 작고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때 이루어진 일본문학연구의 성과를 외면하고 싶은

임종국(2002)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단, 초판은 1966). pp.445-446

덧붙여 최근에 김종덕, 김영심, 박광현, 박상현 등이 서두수에 대한 글을 남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51) 최성희는 1931년에 예과 8회로 입학한 후, 법문학부에서 ‘국문학’(=일본문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그는 졸업 후 전공을 법학으로 바꾼다.

52) 박광현은 서두수가 광복 직후 한국문학 전공자로 바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식민지 조선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성 속에서 식민지민으로서 ‘국문학’=지배자의 국학을 한다는 학문적 주체와 대상의 불일치라는 모순의 구속으로부터 항시 자유롭지 못한 채 학문을 수행해야 하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광현(2009)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4집, 한민족어문학회. p.368

53) 서두수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연희대 국문과 교수로 있으면서 교무처장까지 역임했다. 이때 길러낸 제자 가운데 연세대 명예교수로 있는 김동길이 있다.

테일리안(2011년 4월 13일자)

54) 1949년경에 연희대에서 서울대 국문과로 이직한 서두수는 거기서도 교무처장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역대 기관장 명단 www.snu.ac.kr (검색일 : 2012.8.22)

55) 지명훈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49년 서두수는 미 국무부 프로그램으로 해외 대학 시찰을 위해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귀국이 어려워져 눌러 앉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박광현은 서두수가 도미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도미, 인용자)은 ‘국문학’=일본문학 전공자라는 자기 구속과 조선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성으로부터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로 인해 국적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문학, (한일)비교문학이라는 탈출구를 찾았고, 또 조국의 해방으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나 뒤늦게 진정한 해방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지도 모르겠다.” 박광현의 설명은 매우 매력적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추정에 불과하다.

지명훈(2009) 『서남표 천일의 기록』 동아일보사. p.18

박광현(2009)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4집, 한민족어문학회. p.368

우리들의 멘탈리티에 대해 좀더 살펴보자. 경성제대 법문학부 내의 ‘국문학’(=일본문학) 강좌의 계보는 일제의 패망 곧 한국의 광복으로 끊어지고 만다. 하지만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다른 전공은 사정이 다르다. 예컨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홈페이지에는 이 학과의 연혁이 잘 나와 있다. 이것을 참조해 보면 서울대 영어영문학과와의 계보가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외국어학·외국문학’ 강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울대 영문학과에서도 그 계보를 외면하려는 멘탈리티가 보인다. 다음 인용문에 주목해보자.

(영어영문학과. 인용자) 공식적인 역사는 서울대학교의 창립과 더불어 시작된다. 그러나 1946년에 정식으로 개교한 국립서울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의 체제를 근간으로 해서 출범하였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 영문과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감안한다면,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는 20년이라는 짧은 지 않은 전사(前史)를 거느리는 셈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기간은 말 그대로 전사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상론을 피하고, (.....)⁵⁶⁾

하지만 그래도 서울대 영문과는 간략하게나마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계보를 밝히고 있지만,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홈페이지에는 서울대 국문과의 계보가 경성제대 ‘조선어학·조선문학’ 강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조차 애써 외면하고 있다.⁵⁷⁾

4. 나오면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東日本大震災)과 그에 따른 쓰나미(津波)의 영향으로 최근에 들어 일본어 관련 학원의 수강생이 눈에 띄게 줄어

56)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http://english.snu.ac.kr>(검색일 : 2012.8.22)

57) “국어국문학과는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과 함께 출발하였다. 엄혹한 일제하에서 우리말 글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다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옥고까지 치른 이희승, 이병기 등의 애국지사가 초창기 교수였다. 이 분들은 한국과 한국어문학에 대한 사랑은 물론 학문적 역량 또한 누구보다 깊고 뛰어났다. 그 학문 전통은 동문 시인 정희성의 “누가 조국의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넘치는 시구에 잘 담겨 있다. 국어국문학과는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과 뛰어난 학문 전통을 바탕으로 한국어문학 분야는 물론, 한국문화를 이끈 주역들을 다수 배출했으며, (.....).”

이 인용문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연혁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의 일부분이다. 여기에는 이희승의 업적을 칭송하면서도 그가 경성제대 출신임을 밝히지 않는 모순이 보인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http://plaza.snu.ac.kr/~korean>(검색일 : 2012.8.22)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여파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일어일문학 관련 교과목의 폐강이 대폭 늘고, 일어일문학 관련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 수도 부쩍 줄었다고 한다.⁵⁸⁾ 한마디로 일어일문학을 포함한 일본학 관련 학과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이다.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근대학문으로서의 일어일문학을 포함한 일본학 관련 전공의 계보를 더듬어 보는 것은 ‘대전환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우선 일본학 가운데서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의 계보를 『만엽집』 연구사 검토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봤다.

그 결과 근대 아카데미즘으로서의 일본문학연구의 계보는 적지 않은 일본문학 연구자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광복 후에 개설된 한국외대의 일본어과와 국제대의 일어일문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하의 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강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았다.

경성제대 법문학부 내의 조선문학(=한국문학) 강좌, 지나문학(=중국문학) 강좌, 외국문학(=영문학) 강좌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는 광복 후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에서 면면히 이어져 갔다. 곧 조선문학(=한국문학)연구, 지나문학(=중국문학)연구, 외국문학(=영문학)연구의 학적 계보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데 반해, ‘국문학’(=일본문학) 연구의 계보는 광복과 더불어 ‘단절’되어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다. 일제강점기하에 이루어진 일본문학에 관한 학문적 업적의 ‘축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⁵⁹⁾

‘단절된 일본문학연구의 계보’.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의 큰 특징이다.⁶⁰⁾

58) 조선일보(2012년 1월 27일자 인터넷 기사)

59) 앞서 살펴본 김사엽과 최광준 및 정봉택의 『만엽집』 관련 논저에 일제강점기하에 이루어진 서두수의 『만엽집』 관련 선행연구가 참고문헌으로 전혀 인용하고 않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60) 본고는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 겸 제42회 한국일본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부경대학교, 2012년 4월 14일)에서 발표한 것을 전면적으로 대폭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글임을 밝혀 둔다.

【参考文献】

- 권혁건(1994) 「한국에서의 일본문학 연구 현상」 『일본학연보』 제6집, 일본연구학회. pp.131-132
- 김사엽(1983) 『일본의 만엽집』 민음사. p.83
- 김시엽(2008) 「풍죽(風竹)처럼 사신 도남 조윤제 선생」 『스승』 논형. pp.208-230
- 김용기(2000)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의 문제점 및 극복 방안」 『일본문화연구』 제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91
- 김종덕(2003)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문학연구의 현황과 전망」 『일어일문학연구』 제35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41
- 김재수(2000) 「한국인의 일본문학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일본문화연구』 제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43
- 박광현(2009)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4집, 한민족어문학회. p.368
- 박상현(2011)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 번역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연구』 제3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227
- 서두수(1941) 「防人のころ：名作研究」 『국민문학』 인문사. pp46-60.
- 서은주(2008) 「일본문학의 연표화와 식민지 문학의 내면」 『상허학보』 제22집, 상허학회. p.268
- 송석래(1991) 『향가와 만엽집의 비교연구』 을유문화사. p.313
- 이충우(1980) 「조선인 입학생 명단」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pp.265-297
- 이한섭(2000) 『한국일본문학관계연구문헌일람』 고려대학교 출판부. pp.3-417
- 임종국(2002)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단, 초판은 1966). pp.445-446
- 장영철(2000) 「한국에서의 일본 고전문학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일본문화연구』 제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107-120
- 정봉택(1997) 「사키모리노래와 아스마고쿠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제19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222
- 정선이(2002) 『경성제국대학연구』 문음사. pp.106-111
- 정형(1993)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일본학보』 제30집, 한국일본학회. pp.127-128
- 최광준(2005) 「한국에서 『만엽집』 연구 성과와 과제 조명」 『일본학보』 제62집, 한국일본학회. pp.515-516
- 최재철(2005) 「한국의 일본문학 연구-동향과 전망-」 『일본근대문학 : 연구와 비평』 제4집 한국일본근대문학회. pp.123-134

- 최충희(2005) 「한국에서의 일본 중세문학연구의 현황 및 그 비판적 점검」 『일어일문학연구』 제52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31-40
- 朝長 노리(1984) 「한국에 있어서 일본문학 연구·소개의 현상」 『일본문학논집』 남영문화사. pp.511-512
- 항석송(1988) 「한국에서의 일문학연구의 회고와 성과」 『일본학보』 제20권, 한국일본학회. p.33
- 조선일보(2012년 1월 27일자 인터넷 기사)
- 데일리안(2011년 4월 13일자)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http://plaza.snu.ac.kr/~korean>(검색일 : 2012.8.22)
- 서울대학교 역대 기관장 명단 www.snu.ac.kr (검색일 : 2012. 8.22)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http://english.snu.ac.kr> (검색일 : 2012.8.22)

要 旨

2011년3월11日に発生した「東日本大震災」とそれによる津波の被害は甚だ大きかった。そして、その影響は日本だけにとどまらず、隣の国韓国にも及んだ。韓国での日本語教育の現場を直撃してしまったのである。すなわち、日本語学校での受講生が急激に減り、それと同時に、大学では日本語や日本文学及び日本文化に関する授業の閉講が相次いだ。一言で言えば、韓国での日本語教育を含めた日本学教育は、今大きな危機に直面していると言えよう。

韓国での日本学教育があまりにも急激に危機に落ちてしまったことは、実は韓国での日本学教育の「体力」がよくなかったことを示してくれる。まさにこの時、韓国での近代学問としての日本学の系譜をたどってみることは、「大転換期」を乗り越える一つの実践になるであろう。よって、私は本稿ではまず、日本学研究の中で韓国での日本文学研究の系譜を『万葉集』研究史の検討を通して具体的に考察してみた。教育と研究は密接にかかわっているからである。その結果は以下の通りだ。

まず、韓国での近代アカデミズムとしての日本文学研究の系譜は、多くの日本文学研究者の考えとは異なり、終戦(=光復)後開設された韓国外語大学の日本語科と国際大学の日語日文科(=主に日本語と日本文学を教える学科)から始まったのではなかった。植民地時代(=日帝強占期)の京城帝国大学「国文学」(=日本文学)講座から始まったのである。

つぎに、韓国での日本文学研究の系譜が植民地時代の京城帝国大学「国文学」(=日本文学)講座から始まったということが意味していることは次のようである。京城帝国大学の法文学部に設置された朝鮮文学(=韓国文学)講座、支那文学(=中国文学)講座、外国文学(=英文学)講座で行われた研究成果は、終戦後ソウル大学をはじめ、主な大学で綿綿と続いた。言い換えれば、韓国文学研究、中国文学研究、英文学研究の学的系譜は自然につながったものの、「国文学」(=日本文学)研究の系譜は終戦とともに「断絶」され、私たちの記憶から消えてしまった。つまり、植民地時代の日本文学に関する学問的「蓄積」を生かすことができなかつたのである。

「断絶された日本文学研究の系譜」、それが韓国での日本文学研究の大きな特徴であった。そして、その特徴が教育の現場にも影響を及ぼし、日本学研究の「体力」を弱くした一原因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京城帝国大学、日本文学、万葉集、徐斗洙、系譜、断絶

투 고 : 2012. 8. 31
1차 심사 : 2012. 9. 15
2차 심사 : 2012. 10. 6